AI 낙관에 S&P·나스닥 신고가
한편, 잔존한 매크로 불안에 다우 하락

미국시황/ESG 김윤정 _ 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 hyseong@ls-sec.co.kr

다시 부각되는 AI 낙관론, FOMO 넘어 FEMO 시대

- 미 증시는 DOW -0.23%, S&P500 +0.61%, NASDAQ +1.19% 혼조. 기술, 산업재 강세, 에너지, 필수소비재 약세
-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5.5%. UBS 에서 마이크론(+19.3%)에 대한 목표주가를 3 배 가량 상향 조정함에 따라 마이크론을 비롯한 기술주 낙관론 환기. 웨스턴디지털(+8.3%), 샌디스크(+7.5%) 등 동반 강세
-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시장이 FOMO 를 넘어 FEMO(놀라운 실적 모멘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발언. FOMO 는 희망과 과장된 기대에 기반하나 FEMO 는 펀더멘털에 기반한다는 차이를 언급
- 다만 블룸버그는 휴전 기대감에 의한 AI 관련주 급등은 악순환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매수포지션을 상쇄할 호재를 기다려야한다고 경고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중동정세, 국제유가 혼조

- 국제유가 혼조 WTI $93.6(-3.1%), Brent $96.3(+3.1%). WTI 는 이란과의 협상 기대감을 반영한 한편 브렌트유는 미국의 이란 남부 공습에 대한 불확실성 반영
-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 종전협상을 앞두고 합의문 문구를 두고 의견이 오가고 있으며 최종 타결까지 며칠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이란 대통령실 측은 모두 협상이 임박했음을 시사
- 미군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기뢰부설 시도 선박과 미사일발사대를 공습했다고 밝힘.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자 저강도 공격을 감행한 것. 이란 혁명수비대는 휴전협정 위반 행동이라며 반발

WTI 하락 영향 국채금리 하락

- 5 월 CB 소비자신뢰지수는 93.1, 전월비 하락했으나 컨센 상회.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 영향이 지표 하락에 영향을 주었으나, 노동시장 인식은 엇갈림. 향후 6 개월간 고용상황은 낙관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MU	마이크론	+19.3%	UBS가 TP $535→$1,625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주가 급등. UBS는 AI가 메모리 산업 전반에 가져온 구조적 변화의 세부 내용들이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은 마이크론에 더 '정상적인' 멀티플을 부여하기 시작할 것이며 주가는 지속적으로 리레이팅될 것이라고 분석.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및 사상 최고치 경신. 더욱이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돌파구 소식이 섹터 전반의 온기를 더함
QCOM	퀄컴	+4.5%	바이트댄스와의 AI 칩 수백만 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주가 강세. 해당 칩은 AI 데이터센터용 ASIC으로, 퀄컴은 AI 인프라 시장 내 입지를 확장하게 됨. 시장은 퀄컴의 스마트폰·전장 중심에서 AI 인프라로의 본격적인 영역 확장 가시화에 주목
INTC	인텔	+3.1%	노스랜드 캐피털마켓은 투자의견 'Outperform' → 'Marketperform'으로 하향 조정. 하향 근거로는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수준과 더불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인프라 지출이 '27년에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
LLY	일라이 릴리	-0.0%	큐레보, 리마텍 바이오로직스, 백신 컴퍼니 등 백신 3사 인수 소식 발표. 한편 '26년 누적 M&A 규모 $20B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 갱신. 센테사(수면장애, $7.8B), 켈로니아(항암제, $7B) 및 백신 3사($3.8B) 등 공격적 인수 단행하며, '포스트 비만치료제' 시대를 대비한 사업 영역 확장 중
LUNR	인튜이티브머신스	-8.9%	호실적 및 우주항공테마 매수세에 장 초반 강세 보였으나, NASA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용 달 표면 탐사차(LTV) 계약을 경쟁사에게 수주했다는 소식에 주가 급락. 시간외 +3%대 상승중
FDX	페덱스	+1.5%	회계연도 3분기 실적 가이드라인 발표(EPS $4.11~$4.14, 매출 $23.5B). 사측은 유가 상승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로 수익성 둔화 예상. 한편 웰스파고는 화물 부문 개선 기대감 등에 투자의견 '매수', TP $450 유지